

미측은 조선업 협력을 위해 노조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을 보내달라고 우리측에 전달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2025.8.6. 매일경제 「“강성노조원 사절” ...MASGA 변수로」 제하 기사에서

- 미국 측이 강성 노조 활동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한국 정부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□ 미측은 조선업 협력을 위해 노조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을 보내달라고 우리측에 전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	책임자	과 장 김의중 (044-215-4330)
		담당자	서기관 이디도 (044-203-4331)